



인종차별

사회적
진화론 4
(Social
Evolutionism)

자연선택과 적자생존 등에 의해 오늘날의 생물들로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진화론은 깊이 없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과학적 검증 없이 유럽을 장악해버렸다. 그리고 진화론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별히 인간이 적자생존과 생존경쟁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자신과 타인을 진화론적으로 바라보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른 영향 중에 인종차별(racism)에 대하여 다루어 본다.

인종차별에 대한 사고는 단지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시작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죄악 된 마음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인류 역사 동안에 존재해왔다. 그

러나 인종차별을 부추기는데 진화론이 기여했다는 것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다. 진화론자의 대부 격이었던 굴드(Stephen J. Gould) 역시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생물학적 주장들이 1859년 이전에도 흔하긴 했지만, 진화론을 수용하게 된 이후로는 수십 배의 강도로 증가되었다”(1977)라고 인정한 바이다. 진화론은 단순한 인종차별을 넘어서 학대, 심지어 대량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인종차별을 했던 극단적인 예로써 나치의 히틀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는 유대인, 집시, 타종족 집단을 열등하다고 여겨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치 자신들이 특급 인종이며 열등한 인종을 말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이에 대하여 인류학자며 무신론적 진화론자였던 키스(Sir

Arthur Keith, 1866–1955, 영국)는 히틀러가 얼마나 진화론을 신봉하였는지 말한다. “히틀러는 진화론이야말로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진정한 기초를 제공하는 유일한 이론이라고 거의 종교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는 진화론자였다. 독일의 행위가 진화론과 맞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했다”(Evolution and Ethics, New York: G.P. Putnam's Sons, 1947, p. 28–30, 230). 실제로 히틀러는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나 인종의 인구에 개입한다는 자연선택에 대한 개념을 국가 간에 적용시키려 했다(Adolf Hitler, Mein Kampf, published Houghton Mifflin, 1971, Chapter 4). 그러나 단지 히틀러 만이 진화론을 믿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 대다수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연설에 동의했으며 그를 총리와 총통으로 뽑아주었다.

인종차별과 같지는 않지만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킨 공산주의는 사람을 다루는데 진화론적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모두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엥겔스는 ‘종의 기원’을 읽고 친구인 마르크스에게 다윈을 칭송하는 편지

를 썼으며,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 속 겉표지에 친필로 “찰스 다윈께, 진실한 추종자로부터”라고 썼다. 또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장례식 추모사에서 “다윈이 유기체에서 진화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인류역사에서 진화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며 공산주의와 진화론의 연관성을 분명히 언급했다.

공산주의를 실현시키려 했던 스탈린, 모택동, 폴 포트 등은 모두 적자생존의 진화론을 신뢰했던 자들이었으며 각 나라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민족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며 적과 민족들을 말살하려 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진화론적 사고에 동참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도 진화론적 사고를 갖춘 자들에 의해 인종차별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삶에는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코카시안(백인들로 대표되는 종족)이 가장 높은 종족이라고 여겼다. 그 예로 오타 벵가(Ota Benga, 1881–1916, Central Africa, 피그미족)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04년 St. Luis 세계박람회에서 “야만인의 전형, emblematic savage”로 전시되었으며, 1906년에 사상 처음으로 동물원에 수용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 동물원을 찾았으며 이에 따라 동물원측은 많은 재정적 수익을 보았다. 몇몇 흑인 목사들이 오타를 보호하였으며 이런 극단적인 인종차별이 진화론적 사고에서 왔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오타는 동물원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1916년 총으로 자살했다.



진화론자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뛰어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흑인들이 열등한 비인간적인 존재라는 자신들의 진화론적 편견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류의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들을 보며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다. ‘흑인은 힘은 세지만 가장 지능이 낮은 고릴라로부터 진화했으며, 동양인은 오랑우탄에서 진화했고, 백인은 영장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난 침팬지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식의 그림들을 그렸고, 실제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고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지구촌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탄압, 종족학살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영국에서는 호주 원주민들을 빠진 고리(Missing Link)로 여겨 박물관으로 운송하기도 했으며, 조작된 유골인 필트다운인을 과장해서 보도하기도 했다. 유럽에서 자신들이 가장 먼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로써 독일에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그 증거로 요란하게 떠벌렸다.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는 15,000구가 넘는 유해가 보관되어 있다. 실제로 이들은 모두 사람 아니면 원숭이들이다.

한편,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진화론과 전혀 다른 시각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며,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탔던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지금의 온 인류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혈통을 갖고 있으며(행 17:26), 단지 유전적의 재조합과 바벨탑 사건에 따른 격리로 인해 다양한 피부색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유전학은 인간들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피부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성경과 일치한다. 성경에 인종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한 혈통(one blood)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혈통으로써 생물학적으로 서로 결혼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다윈이 신학을 공부했고, 스탈린이 사제 수업을 받았고, 히틀러는 등록 교인이었으며, 중국 모택동은 서구 선교사의 활동 기간에 살았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경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수용하고 성경을 버린 것이다. 19세기 후반 신학계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진화 역사를 사실로 놓고 구약 성경을 신화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이 시도의 대상에는 창세기가 중심에 있었

으며, 자유주의 신학의 탄생이 그것이다. 한편에선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그릇된 해석으로 인종차별에 앞장섰던 근본주의자들도 있었다. 그 유래가 진화론에서 비롯되었건, 다른 데서 왔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문화적 분열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종차별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죄가 그 중심에 있다. 인종 문제는 어떤 치료제로도 치유될 수 없다. 어떤 법적 시도나 캠페인도 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한 인종차별의 죄는 바른 과학적 사실과 성경적 원리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진화론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에 대한 확신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참조

Ham, Kem and Charles Ware, Darwin's Plantation: Evolution's Racist Roots, Master Books, 2007.

Morris, Henry M., The Long War Against God: The History and Impact of the Creation/Evolution Conflict, Master Books, 2000.

Morris, Henry M. and John Morris, The Modern Creation Trilogy: Scripture and Creation, Science and Creation, Society and Creation, Master Books, 1996.

AFTER EDEN

by Dan Lietha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지난 7월 30일-8월5일 인천동춘교회(담임목사 윤석호)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동춘교회는 지난 해 청년부가 참석했었고, 3월 한국방문시 이재만 선교사가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년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의 과학적 증거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성경에 대한 신앙 전수에 대하여 공감했는데, 내년 2월에 예약된 청년부 창탐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두암중앙교회

지난 8월 9-16일 광주두암중앙교회(담임목사 박성수)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요셉비전교회 교사와 학생을 주축으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교회 집회 때 창탐을 결정했는데 참석자들은 이 시대에 창탐에 온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창 진화론을 배우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화론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던 귀한 시간임을 간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기독교 학교이

지만 진화론을 여과 없이 가르치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이 진리를 바로 접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학교와 교회가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암중앙교회는 이번 창탐을 계기로 계속적으로 창탐에 참석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전주동은교회

지난 8월 16-23일 전주동은교회(담임목사 서경수)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8일간 창탐 경유지의 거의 모든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으로 성실하게 창탐에 임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동은교회에서 이재만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진화론에 젖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음을 간증했습니다. 동은 교회도 내후년 창탐을 예약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광주두암중앙교회



전주동은교회



인천동춘교회



성남영도교회

8월 28-31일 성남영도교회(담임목사 경중헌)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영도교회 창탐 참석은 처음입니다. 창탐 내내 진지하게 성경의 증거들을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인 오늘날 창조과학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공감했습니다. 시중 진지했으며, 교회 세미나도 희망하셨습니다.

시애틀형제교회

9월 5-8일 시애틀형제교회(담임목사 권준)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형제교회는 이미 여러 번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한해 창탐 스케줄이 꼭 찬 관계로 몇 년 만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는 미주 이민교회의 2세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이민교회가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참석자들은 2세들의 창탐이 꼭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성남영도교회



시애틀형제교회

20차 유학생창조과학탐사

20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기간: 2018년 1월 2-5일(화-토, 3박 4일)

-출발시간: 1월 2일(화) 오전 8:00

-출/도착 장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경유지: Mojave 사막, Grand Canyon, Glen Canyon Dam, Bryce Canyon, Zion Canyon(숙박은 Williams, Kanab, St. George)

-모집 인원: 50명(버스 정원 때문에 50명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원생(여러 교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교회에서 10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참가비: \$50(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장학금 형식의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참가비와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합니다)

-참가방법: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양식과 함께 참가비(payable to ACT)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가비가 도착하는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일찍 정원이 차기 때문에 참가비를 보내시기 전에 좌석이 남았는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숙소는 2인 1실, 식사는 첫 날 점심부터 마지막 날 점심까지.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벌써 20차를 모집합니다. 20이라는 숫자가 그러듯이 더욱 주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진화론적 사고로 가득 찬 세상에 한창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께 성경적 증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회가 있기까지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위 많은 유학생들께 권해 주십시오. 문의) HisArk@gmail.com / Tel. 562-868-1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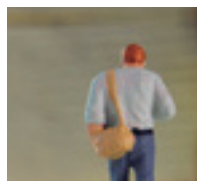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에 뿌리내리고 있고 사실과 진리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작할 때, 당신은 곧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어둠으로의 도약이 아닌, 빛으로 들어선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독특한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I. 성경 자신의 주장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 사람이라도 성경이 매우 범상치 않은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성경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만약 그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읽는다면, 그는 분명히 성경 자체가 매우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몇 백

구절에서, 성경은 노골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 자체라고 선포합니다. 컴퓨터 용어 색인은, 약 3,800번에 걸쳐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성경의 “언어의 제한 없는 영감”(verbal plenary inspiration)을 주장해 왔습니다. 제한 없는(plenary)이라는 단어는 full이라는 뜻의 라틴어로부터 왔고, 언어의(verbal) 라는 단어는 word를 의미합니다. 이 주장은 성경 저자들이 단지 그들의 생각만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 그들이 사용한 단어, 글자와 문장의 동사 시제 까지 모두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단지 생각만 영감을 받았다면 그러한 “생각”은 다양하고 폭넓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치 숫자 없이 수학이 불가능한 것처럼 단어들 없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숫자를 바꾼다면 당신은 수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어를 바꾼다면 당신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단어는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동등하게 영감 받았습니 다. 레위기 3:16은 요한복음 3:16보다 조금도 덜 영감 받지 않았습니 다. 창세기 1:1은 요한계시록 22:21보다 조금도 덜 영감 받지 않았습니 다. 레위기 3:16이 당신에게 요한복음 3:16보다 덜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꼭

성경이 왜 독특한 책일까?



현명한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입니다. 만약 당신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면

당신이 믿는 모든 것에 대해 평가할 다림줄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국, 지옥, 예수님,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모든 생각과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멍청하거나” 혹은 “무지하거나” 혹은 양쪽 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그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지 눈먼 신앙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에 뿌리내리고 있고(히브리서 11:1), 믿음은 사실과 진리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디도서 1:1). 또한 성경이 독특한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조사하기 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영감 받았으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3:16-17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 받은” 책임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후서 1:16-21). 사도 요한 또한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 1서 4:6).

성경의 저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주의한 독자조차도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Ken Ham and Bodie Hodge, Answers in Genesis / 번역 : 이충현

● 본 글은 How do we know Bible true II (Master Books) 중
Chapter.5 Why is the Bible unique? 에 대한 연재입니다.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10기 ITCM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2월9일까지 7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 (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또한, 성경공부와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론을 배웁니다. 이런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이 전하는 기원 역사와 복음에 대해 선한 증거를 얻게 되며, 창조과학을 도구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지식과 실제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 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3.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4. 추천서 1부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위 4가지 지원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앙고백과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해 주십시오.
-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10명 이하로 선발합니다.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프로그램]을 참조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내실 곳 : 조희천 heavenlyjoyful@gmail.com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혼란과 걱정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적은 의미의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고 갑니다. 더욱 단단해지고 강건한 메세지와 간증 깊이 감사 드립니다.

-차경태<유타베다니침례교회>



성경을 대적하는 시대에 성경이 사실임을 다시 강조 해주시고 내용과 가르치심의 내용이 복음적이어서 먼저 내가 살고 교회도 살려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세미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성권<신시내티능력침례교회>

창세기를 그림 보듯 은혜됩니다. 전도 성숙에도 유익한 간증입니다.

-박빈<소중한교회>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변화를 선교사님의 열정으로 가득

한 탐사를 접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제 자신이 더욱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깨달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 아들과 딸과 함께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윤현우<한빛침례교회>

진화론적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던 어리석음에서 성경적 사고로 진화론을 재 해석하고 오류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김태운<새순침례교회>

이전에 이재만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세미나를 듣고 다시 그랜드 캐니언의 현장에서 듣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더



욱 충실한 가르침으로 목회해야 함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송경원<빙햄튼침례교회>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기에 6일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 사람과 함께 오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타노미노루<엘에이쥬블리교회>

“처음이 좋았더라.” 천지 창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한 심판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중심적이고 열정적인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유익한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 되었습니다.

-최병환<책스한인침례교회>

2018/2019 ACT Schedule

10/4-10/11	창조과학탐사(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5-10/21	창조과학탐사(광주성암교회), 이재만
10/26-10/27	창조과학세미나 (뉴저지초대교회), 이재만
10/28	창조과학세미나 (멘하탄인투교회), 이재만
12/5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22-2/9	제 10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20차 유학생), 이재만
1/18-1/24	창조과학탐사 (대구성은교회, 행복사랑교회), 이재만
1/25-1/27	창조과학세미나 (LA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